“남북 공존 동아시아 번영 위한 ‘한반도 모델’ 만들어야”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자유·평화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유산 물려주신 선열에 존경과 감사

지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꿈꾸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 넘어 유라시아로…희망과 번영 시작될 것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 9.24.~10.5.(12일간)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통계조사원이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보훈대상자 중 표본추출 인원 11,000명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조사내용**: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대한 개인조사와 가구현황 조사
- 개인조사: 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경제활동, 노후 등
- 가구조사: 가구일반, 주거, 소득 및 지출, 자산·부채 등

※ 개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됨

◯ **조사기관**: 국가보훈처·통계청
◯ **조사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정책총괄팀 044-202-5391~2

Q. 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보훈대상자 중 유형별 등록자 수와 거주지역(서울, 부산 등)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 본인이 원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희망하더라도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계학적 방법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로 한정되는 조사로서, 기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생활수준조사”와는 다른 통계조사입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번 조사·분석을 위해서만 사용 후 폐기됩니다.